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7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실시-11면(2026.04.29.)	동부농업기술센터	농민신문
○ 농기원, AI 기반 농가 경영성과 분석 지원 현장 컨설팅 추진-6면	농업디지털센터	삼다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가족과 함께하는 ‘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서귀포시, 오는 15일까지 지역 농·감험서 신청 접수-7면	-	제주매일
○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제주시, 15일까지 추가 접수-10면	-	제주매일
○ “농사 안지으면서 농지소유, 근본적으로 고쳐야” -2면	-	한라일보
○ 농촌 여행도 취향 따라 맞춤형으로-6면	-	한라일보
○ 도교육청-제주농협 협력해 농촌체험학습-6면	-	한라일보

(농민신문: 2026년 4월 29일)

○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실시-11면

농산물우수관리 교육 실시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박명종)이 최근 본점에서 로컬푸드 출하농민 4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교육에선 현지혜 동부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GAP 제도의 이해 ▲GAP 현장실천기술 ▲GAP 인증절차 등을 지도했다.

박명종 조합장은 “로컬푸드 출하농가들이 농산물 생산·수확·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귀포=류수연 기자
4. 29.

capa74@non... 농민신문 11

(삼다일보: 2026년 5월 7일)

○ 농기원, AI 기반 농가 경영성과 분석 지원 현장 컨설팅 추진-6면

농기원, AI 기반 농가 경영성과 분석 지원 현장 컨설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이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성과 분석 지원 현장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 및 필지 단위 경영정보와 제주농업 데이터 허브인 '제주DA 플랫폼'의 34종 데이터를 연계해 농가의 경영상태

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앞서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전국 3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총수입이 7.7% 상승하고 경영비는 5.6%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5곳 농가도 참여해 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촌진흥청과 공동 주관하되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240곳 농가로 확대한다. 대상 농가는 필지 단위 경영정보 조사(1500필지)에 참여하는 농업인 중 필지 위치와 재배 작물 등을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 작물은 노지감귤,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제주 주요 6대 작물이다. 5. 7.

삼다일보 6
김현중 기자 tazan@sardailbo.com

(삼다일보: 2026년 5월 7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병해충 예방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 피해 확산 전 신속히 방제합시다

▲만감류

△온도 관리=(백화기~만개기) 낮 최고 온도 25도 이하 유지

△물 관리=(개화기~만개기) 7일 간격 15~20t/10a 관수

△병해충 관리=총채벌레,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 예찰 후 초기 방제

△백화기 구리제+기계유유제(120배) 살포=누른무늬병 예방 및 굴응애 방제

▲키위

△신초 관리=결과지 충실도에 맞

춰 불필요한 어린순 제거

△꽃봉오리 숙기=결과지 10cm 내외 일 때 결과지 당 꽃봉오리 3~4개 남김

△인공수분=개화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이슬이 마른 후 오전 중에 작업/꽃가루 발아율 검사 결과에 따라 증량제 희석배율 조정

▲마늘

△젖은 강우는 잎집썩음병, 무름병 등 발생 확산의 주요 요인/토양 과습 방지, 포장 내 발병 개체 즉시 제거, 발생 초기 적용약제 살포

▲초당옥수수

△병해충 관리=나방류 등 예찰 및 방제/나방류 유충 발생 확인되면 해뜨기 전 적용약제 줄기와 잎에 고르게 살포

▲단호박

△터널비닐 제거하며 건실한 아들 줄기 2~3분을 양쪽으로 유인하여 방입재배/제거 전 서서히 환기구멍을 늘려 외부 기온에 적응시킨 후 완전히 제거

△웃비료=요소·염화칼리 각 20kg/10a를 식물체와 가까운 고랑에 살포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위기를 기회로! 표준시비 실천에 동참하세요

▲표준시비란?=필지별 토양 양분 상태를 분석(토양검정)하여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것

▲표준시비 도입 실증사업=관행 대비 비료 사용량 △양배추 43% △

브로콜리 36% △양파 26% △마늘 53.2% 줄여도 수확량·상품성 차이 없었음.

▲마늘 실증사업 현장평가회=5월 중순, 대정읍 일원(문의=760-7352).



토양검정서비스 이용 방법 5. 7. 삼다일보 13

(삼다일보: 2026년 5월 7일)

○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13면

▲가족과 함께하는 ‘굴꽃계절 소풍’ 행사 △일시=5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남원읍 하례리) 일대 △참여 대상=도민·관광객 등 누구나/300명 내외/사전예약 필수 △주요 내용=굴꽃계절길 걷기, 굴꽃 화전 만들기, 굴꽃차 시음, 소원나무 꾸미기, 하굴청 담기 등 △사전 예약=제주감굴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문의=762-3091((사)제주국제감굴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0-7512(농업기술원)

5. 7.
삼다일보 13

(제주매일: 2026년 5월 7일)

○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서귀포시, 오는 15일까지 지역 농·감협서 신청 접수-7면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서귀포시, 오는 15일까지 지역 농·감협서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고당도·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나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다.

신청대상 사업은 △빛물이용시설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 △노지감귤원 방풍망시설 △농산물 운반시설 △제주매일체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

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총 11개이다. 지원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며 지원 대상은 5월 말 확정다.

시는 202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4개 사업에 1986농가 248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이번 추가신청 대상자에게 25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김연정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감귤농가가 기후변화와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두성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7일)

○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제주시, 15일까지 추가 접수-10면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제주시, 15일까지 추가 접수

제주시는 ‘2026년도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이다.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조합원)도 출하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빗물이용시설(단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시설·노지) △노지감귤원 방풍망 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난방기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11개이다.

5.9. 제주매일 10은 지역 농협 또는 감협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실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우선순위 심사와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확정된다.

특히 소농·친환경·여성·청년 농업인에는 사업예산의 30%가 별도 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희망 사업을 지원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봉 기자

(한라일보: 2026년 5월 7일)

○ “농사 안지으면서 농지소유, 근본적으로 고쳐야” -2면

“농사 안지으면서 농지소유, 근본적으로 고쳐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철저한 농지 조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위반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 **한라일보 2하**라”면서 이같이 말했

다. 이 대통령은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고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도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

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보고를 받고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돈을 버는 것과 달리 은행은 한국은행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하고 이자로 이익을 얻는다”며 “좋은 고객만 골라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7일)

○ 농촌 여행도 취향 따라 맞춤형으로-6면

농촌 여행도 취향 따라 맞춤형으로

제주 3곳 경영체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선정

힐링형 테마로 6월부터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 선보

제주지역의 농촌관광 경영체 3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2~3월 공모한 '일반형 소규모 농촌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13개 농촌관광 경영체 심사를 통해 3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 연인, 친구 등 소그룹 단위의 여행객들이 농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는 도심을 벗어난 농촌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형', 농특산물 등 미식을 ^{5. 7.}한라일보^{6.}하는 '식도락형', 숲길 등

자연·마을을 잇는 '트레킹 연계형', 은퇴자에게 농촌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라이프스타일 탐색형'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굴의정원 바령의 '굴향 한방울, 쉼 한모금' ▷조수1리농촌체험마을의 '조수 숨 웨이-JOSU SUM-WAY' ▷(주)아침미소의 '파수꾼의 하루 체험'이 선정됐다. 모두 힐링형이다.

이들 선정 업체는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범 운영, 홍보·마케팅, 온라인 플랫폼(OTA) 입점 기획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새롭게 개발된 농촌 체험프로그램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2026년 5월 7일)

○ 도교육청-제주농협 협력해 농촌체험학습-6면



도교육청-제주농협 협력해 농촌체험학습

어제 고산초 학생 저지리에술인마을 팜스테이 찾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고산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술인마을 팜스테이 체험장에서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농협이 추진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등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 정서와 전통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과 농협은 앞으로 10월까지 5. 7. 8개 학교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4개 팜스테이마을에서 농촌체험학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농협과 도교육청은 2012년 ‘食사랑 農사랑’ 농촌체험학습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총 87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지원해 왔다.

이준협 농협제주본부장은 “농촌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느끼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가 농업·농촌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